

“빛고을 광주, LED 조명 메카로”

市, 오늘 ‘LED 시티’ 선언·심포지엄 산자부 ‘시범도시’ 선정 발빠른 행보

“빛고을 광주를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메카로”
광주시가 5일 ‘LED 시티’임을 공식 선언한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LED 조명도시’사업 추진을 앞당기고 수도권 등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광산업진흥회 주관으로 5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지역 LED 업체 대표들과 유관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ED 시티 선언식’과 ‘LED 조명도시 조성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는 선언문을

통해 “광주가 세계 속의 ‘빛고을’로 우뚝 서고 세상의 빛을 바꾸는 LED 시티로 당당히 자리잡을 것”을 선포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태스크포팀을 구성,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3천억원(국비 1천800억원, 시비 500억원, 민자 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를 LED 조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LED 조명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LED 조명 확산 및 보급 ▲조명제품 개발 및 실증사업 ▲LED 관련 기업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또한 지난해 하순에는 산업자원부

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530 프로젝트(2015년까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대체하는 사업)’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선도사업으로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광주가 광산업 육성 도시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고 ‘2009 광(光)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어 LED 시범도시로서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 형성 ▲에너지절약 실증 가능 ▲홍보효과 등 시범도시 선정 조건이 광주의 특성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ED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광주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박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때 생기는 발광 현상을 이용한 차세대 광원. 전력이크게 들고 효율이 좋아 형광등, 백열등 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LED 산업 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광주를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국내 유수의 LED 관련 기업 집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안섭 시 광산업담당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LED 조명도시’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주민 만드는 ‘감동 행정’ 결실”

행정서비스 대통령상 광주 서구청 전주인 청장

광주시 서구가 한발 한발 주민 중심의 의미 있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365 민원봉사실 운영’ ‘공(光)클린 악취 제거제 개발’ ‘1시간 빠른 민원 서비스’ 등은 전국의 기초단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전주인(사진) 서구청장이 주도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지방행정혁신종합평가(국무총리상)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대통령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이는 평소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을 강조해온 전 청장의 행정철학이 빚어낸 산물이다. 전 청장은 민선 4기를 출범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쳐겠다고 약속했다.
‘아침형 인간’으로 불릴 만큼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업무를 봐온 전 청장은 이 약속을 지켜냈다. 출범 직후 낙제점미던 행정혁

신분야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결과물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현장 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행정서비스현장 평가는 매년 행정부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전국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이행의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행정서비스현장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개설한 ‘365 민원봉사실’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전 청장이 이뤄낸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다. 주말과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전국 기초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출국을 포기할 뻔한 30대 서울 시민이 ‘365 민원봉사실’의 도움을 받아 가가스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등 그 인기가 대단하다.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는 전 청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2010년 살기좋은 서구만들기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민을 최고 고객으로 모시고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구 ‘LED 발광 횡단보도’ 상용화 지식재산 2호...(주)SEO와 계약

‘지식재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남구가 자체 개발한 ‘횡단보도 발광장치’를 업체와 계약해 상용화에 들어간다.
광주시 남구는 5일 상환실에서 (주)SEO(대표이사 이형각)와 지식재산 2호인 ‘횡단보도 발광장치’ 상용화 계약을 맺는다.
‘횡단보도 발광장치’는 횡단보도 영역표면에 특수야광 물질을

바르고, 태양발전시스템을 활용한 LED 발광장치를 정지선과 중앙선 바닥에 부착해 보행자나 운전자에 어두울 때도 잘 보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주)SEO는 지난해 12월 남구에 이 제품에 대한 계약의사를 밝혔고, 3천만원의 기술개발료와 생산·판매시 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지급키로 했다.
/김철상기자 kps@



해빙기 재난 예방 결의
광주시 남구는 4일 양림동 주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해빙기 재난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주택공사 건설 노동자와 주민 100여명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제2순환도로 교통개선 효과 크다

소요시간 3분의 1로 단축...혼잡비용 年 1,655억 절감

광주 제2순환도로가 사실상 완전 개통되면서 주변도로의 이동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혼잡비용도 대폭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교통정책 연구실이 제2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소요시간이 26분에 불과, 주변도로를 이용할 때 1시40분에 비해 무려 1시14분이 단축됐다. 도시고속도로인 2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변 도로에 비해 소요 시간이 3분 1로 줄어든 것이다.
또 전체 16개 나들목(IC)의 교통량 조사에서는 동남나들목이 출근시간대(오전 8시~9시)에 5천742대가 몰려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동광주, 지원, 효터IC순이었다.
최근 시간대(오후 6시~7시)는 시의 진입 길목인 동광주 나들목(4천 900여대)이 가장 많았으며 동남IC(3천700여대), 서정IC(3천600여대) 순이었다.

특히 제2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해 결과 주변 서문로와 남문로, 대남로 순으로 교통분담량이 컸으며 이에 따른 연료절감액은 755억원, 교통정체 해소 등 시간절감에 따른 경제효과는 900억원 등 연간 총 1천65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 구간 통행량 수요 추정 결과 지난해 28만7천여대에서 올해는 29만2천여대, 2009년 29만7천여대, 2012년 31만3천여대 등으로 1.73% 증가에 그쳐 막대한 건설비용에 비해 이용 차량은 그리 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분석 결과는 향후 도로 개선이나 개설 타당성 검토, 2순환도로 이용률 제고, 통행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차로 도시고속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총 길이 37.66km로 시비와 민자 등 1조2천46억원이 투입됐으며 1992

년 문흥~소태간 1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문흥분기점을 제외한 전 구간이 순환선 형태로 연결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경제정책자문관 정구창 韓銀 부분부장

광주시는 4일 경제정책자문관(국장급)에 정구창(53·사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부분부장을 위촉했다.
정 자문관은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해 여신관리국, 감독기획국, 프랑크 파리 사무소, 금융안정분석국 등을 두루 거친 금융통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2년동안 광주·전남본부 부분부장을 역임해 지역 경제실정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정후식기자 who@

부실시공 업체 입찰 제한 조례 만든다

광주시 ‘날림공사’ 추방 나서
광주시가 부실시공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준공된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 각화터널 누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시장은 “준공한 지 1년도 안된 곳에서 비가 새도록 날림공사를 한 시공업체에는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민간인 감독관과 주민 신고제가 있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감리업체, 감독공무원은 공동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05년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정작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조례는 없는 상태다.
박 시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제행사 유치와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시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모퉁이 국내 최대 민원 대행시
24시간 민원대행
010-773-3117, 010-773-3118

오늘 안의 행사
행사기념행사

3월 5일 행사
3월 6일 행사

3월 7일 행사
3월 8일 행사

3월 9일 행사
3월 10일 행사

3월 11일 행사
3월 12일 행사

3월 13일 행사
3월 14일 행사

3월 15일 행사
3월 16일 행사

3월 17일 행사
3월 18일 행사

3월 19일 행사
3월 20일 행사

3월 21일 행사
3월 22일 행사

3월 23일 행사
3월 24일 행사

3월 25일 행사
3월 26일 행사

3월 27일 행사
3월 28일 행사

3월 29일 행사
3월 30일 행사

3월 31일 행사
3월 31일 행사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꽃샘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영무모와 당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영무모와 당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 선영무모와 당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3. 선영무모와 당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010-773-3117, 010-773-3118, 010-773-3119